

# 나주시, 탄소중립 '글로벌 에너지도시' 도약

###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서 "에너지산업 메카 지원" 한목소리 리처드 물러·마크 제이콥슨 등 세계 에너지산업 비전 모색

나주시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의 열쇠가 될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6-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대강당에서 2024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을 성료했다.

개회사와 내빈 기념사·축사·특강, 개막 퍼포먼스에 이어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저자인 리처드물러UC 버클리 교수의 기조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엔 윤병태 나주시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박진호 컨텍 총장직무대행,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포럼 첫 강연자인 리처드물러 교수와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 교수, 마니사라시 김압둘라과학기술대 교수, 이경수 인에이블퓨전 의장, 문승일 포럼추진위원장도 함께 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의 자체 전력 생산·소비가 가능한 소규모 전력망 개편에 중점을 둔 군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최순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이일용 31보병사단장, 양태봉 육군포병학교장, 김상술 육군공병학교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빈들은 기념사, 축사 등을 통해 이번 포럼 개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미래 비전과 더불어 나주와 한전, 컨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산업 메카 도약을 강조했다.

기념사를 한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에너지 수도 나주, 세계 최



나주시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대강당에서 2024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주요 내빈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컨텍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일"이라며 "세계 석학들과 지혜를 모아 멋진 성과를 도출해 나주의 꿈이 곧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은 오늘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에너지 신기술

·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나주와 컨텍에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이 함께 미래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고 핵심적인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농업도시였던 나주는 한전 이전과 기업·대학·기관 집적화로 에너지중심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나주가 글

로블 에너지도시로 도약하는 계기이자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변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석 내빈에 이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영상 강연, 축사로 나주의 첫 에너지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인류와 지구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분산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자력과 핵융합은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기술로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영암 월출산국화축제 막바지 준비 '착착'

### 7.1m 고려점성대·3.6m 마애여래좌상 국화작품 선배

영암군이 지역 국화축제와 차별화된 월출산국화축제의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사진)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16일간 영암읍 월출산기린전에서 개최하는 '영암 월출산국화축제'에 높이 7.1m 고려점성대, 3.6m의 '하늘아래첫부처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의 아름다운 국화 조형물을 준비하고 있다.



화분 이외의 전시용 국화 작품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재배하고 있다. 올해 고온과 집중호우 피해에도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축제에서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선보일 높이 3.6m의 '하늘아래첫부처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과 7.1m 고려점성대 조형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막바지 국화재배 과정을 잘 마쳐 10월 말에 최상의 상태로 국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이들이 방문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와 상가 등에서 가꾸는 국화

/영암=나동호기자

## 신안천일염, 생산종료 시기 15일 앞당겨

### 오늘까지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생산 결정

신안군은 29일 "신안천일염(사진) 생산자들이 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생산종료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생산 시기 종료를 10월15일에서 이를 앞당겨 9월30일까지로 하고, 고품질 신안천일염 생산과 유통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봄, 가을에 생산되는 소금은 알갱이 입자가 작고 나트륨 함량이 높아 쓴맛이 강해 천일염의 품질향상 방지를 위해 신안군은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일염 생산 시기를 매년 3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로 정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천일염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 시기 단축 결정에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층 향상된 품질의 신안천일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 완도군-GIST,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맞손'

### 교육·기술·인재 양성 등 4개 분야 협력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바이오 기술 협력 및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바이오 분야 특화 산업 유치 등을 위한 교육 및 기술협력 ▲차산업과 농수축산업 연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 공동 협력 ▲완

도군 교육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 협력 ▲광주과학기술원 기술 경영 아카데미(GTMA) 교육 과정 개설 및 장학생 선발 등이다. 완도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완도의 해양 자원과 GIST의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이 만나면 대한민국 해양바이오산업 거점 도



시 구축이라는 완도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 연구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양 기관이 협력한다면 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무안읍 주민자치, '슬기로운 무안생활' 개최

### 내달 9일 불무공원에서 플라마켓

무안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9일 "오는 10월9일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서로 다가지 2024 무안읍 플라마켓' 슬기로운 무안생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경제, 환경,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세대 간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플라마켓의 주인공은 바로 지역의 아동이다. 30여팀의 지역 아동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우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진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 또한 일반

셀러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4일까지 무안읍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에서는 단순한 장터를 넘어 보물창고, 탁구체험, 자치위원을 이겨려와 같은 놀이 프로그램과 다양한 홍보 및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탁구체험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자치위원들이 함께 실력을 겨루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공연과 한글날 삼행시 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성준 무안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무안읍의 창의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 또한 일반

## 서정식당, 영광곳간 착한가게 244호점 선정

### 맛깔스러운 반찬 등 백반 맛집

영광군은 29일 "지난 28일 연산면에 위치한 서정식당이 영광곳간 착한가게 244호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광곳간은 개인, 단체, 식당, 가게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해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입소문으로 단골들이 많은 서정식당은 총 12가지 맛깔스러운 반찬과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 등이 푸짐하게 차려서 나오는 백반 맛집으로,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서정식당 대표는 "나눔은 내가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돌려주는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도 기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곳간 관계자는 "이웃을 위한 서정식당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하다"며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 복지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팀, 역량강화 국내연수 실시

### 행감·본예산 편성 심사 대비·우수 사례 벤치마킹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를 준비하고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박2일간 워크숍 형태의 국내 연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박3일간 추진된 기존 연수와 달리 이번 연수는 빠듯한 목포시 예산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순

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순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심사기법 교육을 받았다.

또한 해안 들레길 조성 및 친수공원 조성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금오도와 웅천 친수공원 일원을 답사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기관으로 주민들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방차원의 시민 건강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포시와 달리 순천시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및 예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봉사단체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연수 기간에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예·결산 심사기법 교육은 목포시 예산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 이뤄져 의원·직원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해안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여수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금오도와 웅천 친수공원 일원을 방문해 사례를 살펴보고 목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목포시의 재정자주도 및 예산운용자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연도별 재정운영 추이가 악화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선택과 집중, 성과 평가 등을 통한 피드백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내용을 토대로 목포시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